



파닉스: 가족을 위한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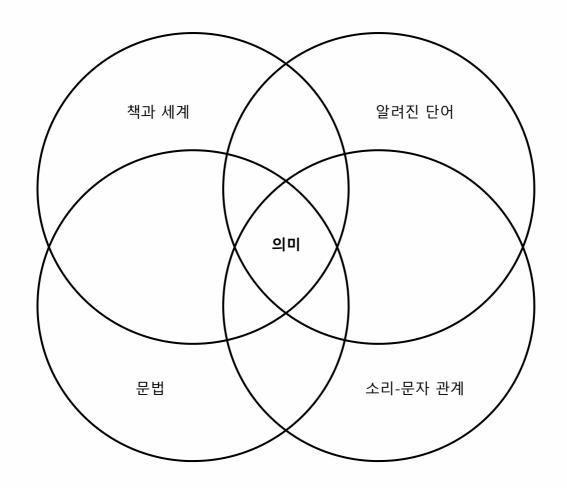
우리가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즐거움을 위해 읽든, 정보를 얻기 위해 읽든, 우리는 읽은 것을 이해하고 읽은 그로부터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독자는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글을 읽을 때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다른 지식을 적용합니다. 독자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끌어모읍니다:

- 책과 세상
- 문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에서 단어들이 사용되는 방식
- 일견에 의해 자동적으로 인식되는 단어
- 알파벳 문자, 그리고 각 문자와 문자군이 나타내는 소리.



알파벳 학습: 파닉스

초기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은 알파벳 문자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배웁니다.

- 각 문자의 생김새
- 각 문자를 쓰는 방식
- 소리 내어 말할 때 각 문자와 문자군이 나타내는 소리.

이러한 소리-문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교수법을 '파닉스'라고 부릅니다.

왜 파닉스를 가르치나요?

글을 쓸 때 단어의 철자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고, 글을 읽을 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도 그 의미를 유추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파닉스는 어떻게 가르쳐지나요?

파닉스 교육은 알파벳의 개별 문자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수업은 알파벳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다음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수업을 구성합니다.

- 보다 많은 단어들의 조합에 사용되는 문자를 먼저 가르칩니다.
- 비슷한 소리가 나거나 비슷해 보이는 글자들은, 몇 차례의 레슨 동안, 서로 분리시켜 가르칩니다.
- 단모음 소리는 초반에 가르칩니다.

읽기 학습에 있어서 파닉스의 역할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The Big Six: a guide for families 를 방문하십시오.

참고 문헌

Carnine, DW. Silbert, J. and Kameenui, EJ. (1997). *Direct instruction reading*, 3rd edn, Merrill/Prentice-Hall, New Jersey.

Shapiro, L. and Solity, J. (2008). 'Delivering phonological and phonics training within whole-class teaching', *The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9: 597–620.

University of Oregon, *Big ideas in beginning reading*, website